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손혜경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일찍이 1913년에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 배경과 구조 및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는 1994년에 초당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산물이다. 실제로 현 노령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03년에 이르러 새로운 노령연금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었다. 스웨덴이 노령연금제도를 변경시킨 이유는 1958년부터 실시되고 있던 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 노령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때문이다. 연금의 지출액이 계속 증가해 미래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스웨덴의 인구구조가 더욱 급격히 노령화되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¹⁾.

이런 이유로 예전의 2계단적 연금 대신 공적 기초연금 및 보험 + 직업연금 + 사적연금의 3계단적 연금으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3계단적 연금구조는 노령연금의 크기를 스웨덴 경제사회의

발전과 연계함으로써 스웨덴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과 연금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의 변화는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제도에 차이를 가져왔다. 1937년 이전 출생자들은 예전의 기초연금+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1938년에서 1953년 사이의 출생자들은 과도기인 관계로 공적 기초연금+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 공적연금제도와 공적 기초연금보험+직업연금보험+사적연금보험의 3계단적 연금제도 양쪽의 적용을 받으며, 1954년 이후 출생자들은 새로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스웨덴 연금의 3계단적 구조



자료 : http://www.sweden.se/eng/Home/Work/The-Swedish-system/Employment_based_benefits/Employment_based_pension/

■ 공적 기본연금 및 보험

3단계 중 가장 기본 단계인 공적 기본연금 및 보험(National basic pension and insurance)은 다시 기초연금(Basic pension)과 소득연금(Income pension)의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Ekonomifakta, 2010-08-19, "Lägre pensioner i sämre tider".

기초연금(Basic pension)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주 낮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스웨덴 시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으로 소위 말해 기본생활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금은 국가의 세금으로 적립된다. 최고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스웨덴에 적어도 40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단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스웨덴 국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연합 국가 또는 유럽연합 협력국가에 거주한 기간도 스웨덴에 거주한 것과 동등하게 다룬다²⁾.

2009년도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관한 조사(Nordisk socialstatistisk kommitté : NOSOSKO)가 실시되었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의 세후 기초연금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세후 기초연금 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노르웨이의 경우는 41%, 덴마크의 경우는 44%, 페로제도의 경우는 60%,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주택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주택보조금(bostadstillägg)을 감안했을 경우 스웨덴의 기초연금에 대한 통계는 약간 개선된다. 주택보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들의 세후 연금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46%, 노르웨이는 52%, 덴마크는 56%가 되고 핀란드의 경우 38%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의 경우 은퇴연령이 67세이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65세이다³⁾.

소득연금(Income pension)

소득연금은 각 개인별로 연금계산 기준임금의 16%가 적립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연금권

2)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e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201008/pensionsskolan-kapitel-2/>

3) PROpensionären nr 4 -09 Svensk grundpension är inget föredöme i Norden, <http://www.pro.se/tidningen/2009/PROpensionaren-nr-4--09/Artiklar/Svensk-grundpension/>

(Pensionsrätt)이라고도 부른다. 매 연도별로 적립되는 연금액에는 최고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2010년의 경우 최고 임금 상한선은 412,377크로나이다. 매 연도별 적립되는 연금액에는 최저선도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간 총 임금이 17,935크로나 이하일 경우 전혀 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소득연금펀드의 운용은 주식시장의 성장 및 후퇴와 관련없이 운용되고 있다. 소득연금의 일부는 Premie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각 개인 연금의 기본이 되는 임금의 2.5%에 해당한다. 이 Premie연금은 각 개인이 선택한 약 800개에 달하는 민간펀드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Premie연금액은 각 개인의 소득의 크기와 노동기간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펀드의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2010년의 경우 최고 Premie연금 적립액은 9,581크로나이다. 연금의 운영을 국가기관이 전부 담당하기보다는 운영 책임을 민간 펀드기관에 분산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는 결국 민간 펀드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⁴⁾.

2009년 말의 통계를 보면 스웨덴 시민들의 평균 Premie연금 적립액은 약 60,000크로나이다. 이 중 97.5%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연금적립액은 최초 적립 이후 긍정적인 투자효과를 보였으며, 펀드 선택을 훌륭하게 잘한 약 64,000명의 경우 1994년을 출발점으로 볼 때 연간 12.0%만큼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⁵⁾. 앞에서 언급한 대로 Premie연금 적립액은 800개에 달하는 민간펀드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개인이 특별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인 제7연금 기금에 투자된다. 이 연금은 세대별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의 투자위험도를 연금적립자의 연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적립자의 연령이 55세에 달하면 투자액 중 안전성이 높은 채권의 비율은 높이고 대신 위험성이 높은 주식의 비율을 점차 줄이도록 되어 있다. 상당수의 스웨덴 시민들은 본인이 투자할 펀드를 선택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60만 명의 스웨덴 시민들은 특별히 펀드를 선택하지 않아 그들의 연금은 제7연금기금이 맡아서 운용하고 있다. Premie연금 적립액은 직업연금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주식펀드에 투자할 가치가 있기도 하다⁶⁾.

4) Pensionsmyndigheten, 2010-12-07, "Vad är premiepension?," <http://www.pensionsmyndigheten.se/Premiepension.html>

5)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a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201008/pensionsskolan-kapitel-2/>

■ 직업연금보험(Occupational pension and insurance)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의 연금보험은 직업연금보험이다. 이 연금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들이 직업연금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도 직원들을 위해 직업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스웨덴의 노동시장에는 4대 직업연금보험이 있고 그 이외에도 4대 직업연금보험과 비슷한 소규모의 직업연금보험도 존재한다. 민간기업 소속 사무직의 직업연금보험은 ITP이며, 민간기업 소속 기능직은 스웨덴 사업주연맹과 LO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직업연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소단위 자치정부와 대단위 자치정부 소속 직원들의 직업연금보험은 KAP-KL이며, 중앙정부 소속 직원들의 직업연금보험은 PA03이다. 사업주가 소속 직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직업연금보험에 적립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들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소속 직장의 직업연금기금 담당자와 접촉하여 결정한다. 보통 개인이 어떤 보험회사에 직업연금을 투자할 것인지, 주식기금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보험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⁶⁾. 현재 스웨덴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직업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통 임금 생활자의 경우 직업연금보험액은 총 노령연금액의 15~20%를 차지한다⁸⁾.

■ 개인연금보험(Private pension and insurance)

3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의 연금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6)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a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201008/pensionsskolan-kapitel-2/>

7)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http://privataaffarer.se/pension/pensionsskolan/index.xml>

8) Privata Affärer, "Pensionskolan kapital 1", <http://privataaffarer.se/pension/201008/pensionshandbooken-kapitel-1/index.xml>

연 12,000크로나만큼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보통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수준이 높아서(예를 들어 월 임금이 32,000크로나 이상인 경우) 공적 기본연금 및 보험에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을 경우 연금액이 본인이 은퇴전 소득보다 많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개인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과 기금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저축의 형태가 있다.⁹⁾

■ 현 노령연금제도의 몇 가지 특징

부부간 연금액 이전 가능성

스웨덴의 현 공적연금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Premie연금 적립액 중의 일부를 부부간에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⁰⁾.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이 낮은 부인에게 Premie연금 적립액을 일부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금액 이전은 부부가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전에 이전한 연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혼과 동시에 이전에 등록한 부부간 연금액 자동이체는 중지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

스웨덴 공적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적 변화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의 기준 소득을 예전의 ‘근로기간 동안 소득이 많았던 15년 평균’에서 ‘근로

9)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http://privataaffarer.se/pension/pensionsskolan/index.xml>

10) 부부간만 아니라 동성간 파트너 등록을 한 경우에도 연금 적립액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동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연금 적립액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간 전체 평균'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예전의 연금제도가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도 최종임금이 낮았던 생산직 근로자 들에 비해 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하면서도 최종임금이 높았던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점을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은퇴연령

현재 스웨덴의 경우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67세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55세에도 은퇴를 할 수 있으며 직업연금과 기초연금의 일부분은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¹¹⁾. 본인이 원해서 61세부터 은퇴를 할 경우 직업연금보험액은 65세까지 매월 0.5%만큼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를 67세까지 연기할 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 매월 0.7%만큼 증가하게 된다.

■ 맺음말

이상에서 현재의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 스웨덴의 연금을 사회 및 경제 구조의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 것에서도 연금적립에 있어 예전과 달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높인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비록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개인이 소득연금의 일부를 선택해서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다수의 스웨덴 시민들이 연금펀드 선택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의 개인 재산 정보지는 시민들이 연금펀드 선택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연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16세부터 노동시장 참여를 권유하며, 또한 연도별로 균등한 소득을 유지해 연금을 적립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라 연도별 소득에 많은 변동이

11) Pensionsmyndigheten, 2010-12-07, "Ansök om pension", <http://www.pensionsmyndigheten.se/AnsokOmPension.html>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득을 각 연도별로 균등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연도별 최고 연금적립액을 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 본인이 적립한 연금액을 연금펀드로 인출할 것을 연기한다면 더욱 높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스웨덴 시민 중의 일부는 지하경제(Black market)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경제에서 일을 할 경우 연금액 적립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은퇴후 연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중도우파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며 저임금이기는 하나 일부 가정서비스 및 건설 분야의 직업 창출로 정규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했던 것은 그동안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해 연금권 적립을 하지 못했던 그룹에게 미래에 연금액을 높일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장래의 스웨덴 연금 생활자에게 한 가지 불안한 소식이라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 수준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연금생활자들의 연금은 유럽국가 전체 연금생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2008년에 65세 정년으로 퇴직한 스웨덴 사람들의 월정 연금액은 그들이 받은 최종임금의 6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이 높은 국가로는 그리스와 네덜란드로 밝혀졌는데 이들의 연금수준은 각각 최종임금의 120%와 104%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나라의 연금수준이 이렇게 많이 높은 이유로 이들 국가의 연금생활자에 대한 낮은 세금이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현재 연금생활자들의 연금이 그럭저럭 유럽연합의 평균 수준인 것과 대조적으로 2048년이 되면 스웨덴 연금 생활자들의 평균 연금은 최종임금의 48%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 유럽국가 중 거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연금에 대한 통계 자료는 스웨덴의 현재 임금노동자들에게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스웨덴 임금생활자들이 높은 연금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금의 최종단계인 사적연금보험 투자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지도 모른다. **KLI**